

# 소녀의 꿈... “비행사가 돼 日총독부를 폭파하겠다”

[3 · 1운동 백년과 여성]

“하늘을 날아 일왕의 궁에 폭탄을 던질거야”  
미국인 곡예비행 보고 하늘을 향한 꿈 키워  
중국 항공학교 입학 허가까지, 험난한 여정  
중공군 선전비행 운명의 날... 종착지는 도쿄



1922년 중국으로 망명한 뒤 항주 흥도여학교에 다니던 권기옥의 모습. 사진 오른쪽 아래.

1935년 6월, 권기옥(1901~1988)은 마음을 다진다. 중국 상해를 출발해 싱가포르 필리핀을 거쳐 일본 도쿄로 향하는 공군의 선전비행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1924년 7월 첫 단독비행에 성공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사진.

여지중회를 졸업한 뒤 꿈꾸던 비행사가 되기 위해 항공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중국 내 항공학교는 운남육군항공학교를 비롯해 4개, 2개 학교에서는 여자라고 거절을 당했고 다른 한 곳에는 비행기가 없어 가지 않기로 했다. 운남학교는 단 하나의 선택지이자 최후의 보루, 꼭 입학해야만 했다.

또 거절을 당할까 걱정한 권기옥은 직접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다. 상해에서 출발해 학교가 있던 중국 서남단의 쿤밍까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른 각오를 했다. 독립전쟁을 위해 군관양성을 추진하던 임시정부가 써 준 추천서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또박 3주를 움직여 운남성 군 사령관 당계요와 마주 앉은 권기옥은 이렇게 말했다. “비행사가 돼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고 싶습니다.” 당시 권기옥의 나이는 22살. 떨리는 마음은 애써 감췄다. 작고 어린 조선 처녀의 기개에 감탄한 당계요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오(好·좋아). 권기옥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권기옥은 후에 “일단 결심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고야 마는 타

고난(내)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운남학교로 향하던 길을 기억했다.

1924년에는 맹훈련 끝에 첫 단독비행에 성공했다. 이 때 권기옥은 독립운동의 스승인 도산 안창호에게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 설레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도산선생 앞에, 20여년 구속받든 앓은 마음과 쓰린 가슴 상제주께 호소하고 공중여왕 면류관을 빼앗으려가나이다. 길이 사랑하여 주심 바라 삼가 이팔을 눈앞에 올리나이다. 사랑하시는 기옥 올림.”

1925년 3월 권기옥은 운남학교 제1기 졸업생으로 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바로 임시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고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국 공군의 비행사가 됐다. 가난한 식민지 조선의 임시정부가 당시 비행기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열악했던 탓이다.

일본으로 폭탄을 몰고 가겠다는 꿈을 실현할 기회는 1935년에야 왔다. 그 해 초 장제스의 부인인 송미령 중국항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청년들에게 공군의 멋집을 알리겠다고 권기옥을 앞세운 선전비행을 제안하면서다. 선전비행은 상해에서 베이징을 오가는 화북선으로 시작해 화남선과 남양선 등 3차로 기획됐다.

마지막인 남양선의 종착지는 일본 도쿄. 권기옥의 눈이 빛났다. “일왕의 궁전에 폭탄을 쏟아부을 날이 왔다.”

실무준비는 상해에서 진행됐다. 공군은 새 장거리 비행기를 샀고 이탈리아인 전문 교관도 초빙했다. 미국인 비행사의 시험비행 중 프로펠러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소 연기되기도 했지만, 준비는 착착 마무리



1935년 중국 공군에서 선전비행을 준비하던 권기옥, 재미 중국인 여성비행사 이월화, 이탈리아인 비행교관과 함께.

되고 있었다. 일정은 6월 말로 잡혔다.

그렇게 다시 1935년 6월, 권기옥은 하늘과 비행기를 차례로 보며 되뇌인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권기옥의 꿈은 그러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선전비행을 이틀 앞두고 일본군이 베이징에 인접한 평타이를 점령하면서다. 베이징에서는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항일 시위가 이어졌다. 프로펠러를 수리하느라 지연된 일정이 결정적이었다.

항공위원회로 복귀한 권기옥은 공군도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결국 비행사복을 벗게 됐다. 1300시간 권기옥이 20여년 간 조국의 독립을 마음 속에 품고 일본을 내리치기 위해 하늘에 머문 시간이다.

## 권기옥은 누구...1925년 한국인 최초 여자 비행사



1937년 난징에서 만난 권기옥과 남편 이상정(오른쪽 아래), 시동생 이상화(왼쪽 아래) 사진.

갈레에서 기옥(基玉), 그리고 에스더로 권기옥(1901~1988)의 생은 조국의 독립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이름을 찾았던 삶으로 기록된다.

1901년 평양에서 태어난 권기옥은 어린 시절 집에서 '갈레'로 불렸다. 끝순이나 말년 류의, 지독한 남아선호사상을 증명하는 이름이다. 손 위 언니에 이어 또 딸이 태어났으니 '어서 가라'는 뜻에서, 아버지는 권기옥을 갈레로 불렀다.

집은 가난했다. 권기옥은 11살이던 1912년부터 은단공장에 취직해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기옥이라는 이름을 찾은 것은 이듬해 장대현교회에서 운영하는 송현소학교에 입학하면서다.

소학교 졸업 후 송의여학교에 편입한 권기옥은 스승 박현숙의 영향을 받아 학내에서 결성된 비밀결사대 송죽회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다. 1919년 3월1일 만세 시위에 동참했다가 감옥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임시정부와 연계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다 다시 체포돼 6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독립운동가에게 몰래 권총을 전달하는 등 임시정부에 협력하던 권기옥은 일본 경찰에 달미를 잡혀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수십번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나도 입도

뻥긋 하지 않는 권기옥을 두고 당시 권기옥을 심문한 일본인 형사는 조서에 이렇게 썼다고 전해진다. ‘히여지는 지독해서 도무지 말을 잃는다. 검찰에서 단단히 다루길 바란다.’

1920년에는 독립운동 동지들과

알려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단발 여성으로 전해지는 1923년의 어느 기생보다 약 3년 앞선다. 사실상 최초의 단발 여성인 셈이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난 남편 이상정(1896~1947)과의 결혼생활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당시

어린 시절 '갈레'로 불려...또 딸이니 어서 가라 뜻  
초대 '딩크족'...남편 이상정과 평등한 관계도 주목

연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전 도대를 꾸렸다. 이때에도 일본의 감시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9월 건널치배에 숨어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 권기옥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긴 머리를 삭둑 자른 것으로

권기옥의 나이는 26살. 결혼을 한 1926년 기준으로 이미 늦은 나이이다. 남편 이상정의 등을 타고 앉아 찍은 사진이 두 사람의 평등한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 그렇게 아이도 낳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 1988년에야 조

카손지였던 권현 광복회 이사를 임명했다. 초대 덩크족인 셈이다.

권기옥 평전소설 '날개돋을 찾아서'를 쓴 저자 정혜주는 “독립운동가 부부 중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권기옥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말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것 역시 비행사, 군인으로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 작가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가 아닌 여성 권기옥 그 자체로 우뚝 섰던 것. 그 자체가 권기옥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사에 남긴 의의”라고 했다.

뉴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